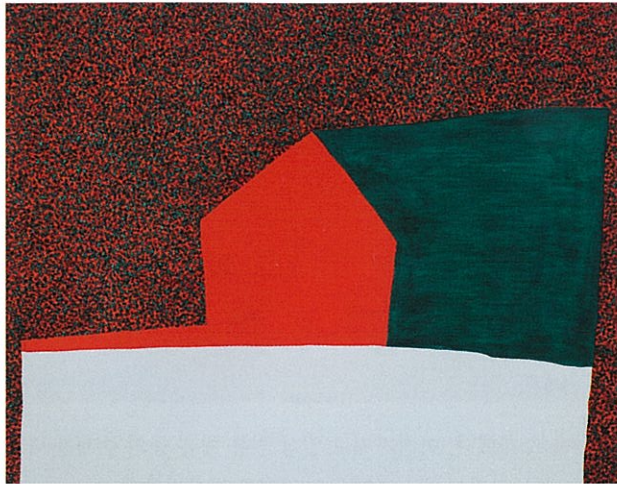


# 시대를 읽는 미술

글 | 정현



흔히 미술사에서는 ‘양식’으로 한 시대를 조망한다. 한때 양식에 의한 미술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 근대미술 초기의 풍경이 그러했는데, 당시의 미술은 시대와 분리된 채 향수, 향토 색이 강한 회화가 유행했었다. 한국미술이 사회참여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1980년대 민중미술의 태동부터였다. 민중미술이 시대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담으려 한 노력은 고유한 한국적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민중미술의 선동성은 시대의 상처와 분노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촉발된 사건이었기에, 민중미술은 형식과 의미가 아닌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적 미술로 성장했다.

같은 시절, 1980년대 한국영화는 흔히 문예물이라 불리는 소프트 에로티시즘의 시대였다. 미술이 사회 변혁을 꿈꾸는 투사정신으로 뚝뚝 뭉쳐 움직이고 있을 때 영화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성인영화는 내용보다 홍보 문구로 욕망을 표현했고 과장된 연기와 어색한 카메라 움직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의 많은 영화가 남성의 성불구와 여성의 잠재된 성적 욕망을 표현했던 것은 독재시대를 장애와 자유의 부재로 은유하기 위한 플롯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고전 미술이 몸(물질)보다 우월한 정신의 가치를 언급했다면, 민중미술이나 서구 아방가르드는 적극적으로 몸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형식주의 양식의 전수는 창작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만다. 동시대미술은 정신을 상징화하지 않고 실제의 삶을 몸으로 느끼려 한다. 바야흐로 감각의 시대다. 관념과 이론 안에 갇힌 예술에서 벗어나 현실에 개입하고 사회 참여를 주저하지 않으며 ‘실재’에 다가가는 예술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미술은 사회학과 인류학이 융합된 문화정치학의 장으로 변화됐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윤동천>전과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전은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지만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시대를 독해하려는 몸짓이 감지되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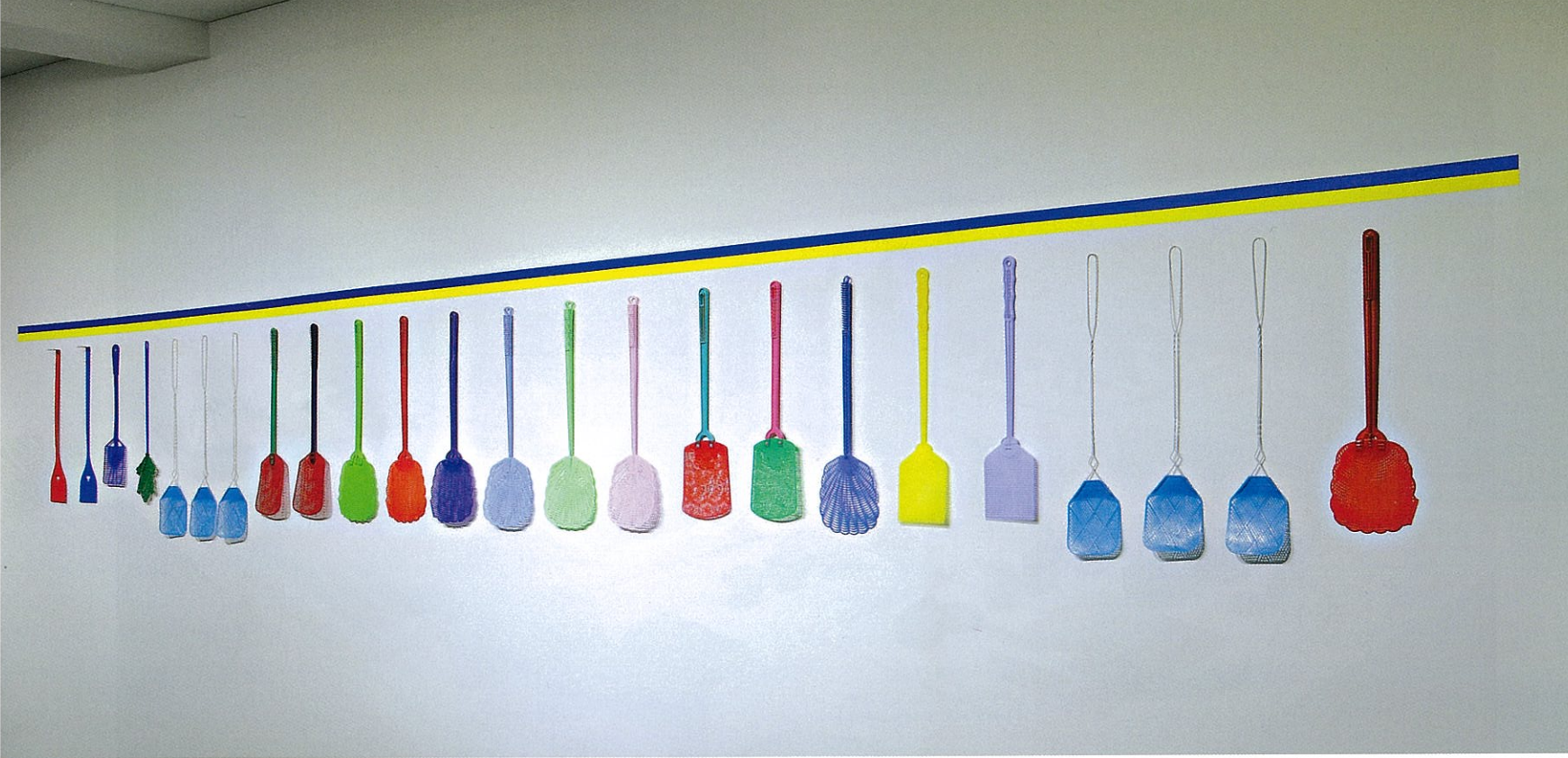
## 정치 현실에 대한 시적 풍자

<탁류>전에서 윤동천은 마치 시사평론가처럼 보인다. 그의 작업은 시대를 비판하는 풍자적 어휘들로 가득하다. 물론 이전부터 그는 서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사진 두 장을 병렬해, 한국의 모순된 현실과 상황을 비꼬는 시사적인 단어를 유추해 내는 놀이 같은 작업을 시도했었다. 2007년 개인전 <조망>에서 작가가 정치를 풍자하되 조금은 무거운 느낌의 관념적인 전시를 보여 주었다면, 이번 <탁류>에서는 훨씬 가볍게 요즘 세태를 구체적으로 풍자해서 꼬집는 하이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일반적으로 풍자나 풍자화는 모사나 재현에 의해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전달하기 마련이다. 대신 윤동천의 풍자는 이미지와 언어(제목)의 교묘한 조합에 의해 시적인 여운을 머금고 있다. 특히 혁명적 시인 김수영의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와 <거대한 뿌리>를 재조합한 회화 <거대한 침-김수영 시인을 기리며>의 어두운 바탕에 힘차게 뿜어 낸 얼룩은 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윤동천의 작업은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안에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기에 관객과의 소통의 폭이 넓은 예

윤동천 <사라지다-적녹색맹을 위한 그림> 캔버스에 유채 181.8×227.3cm 2011

오른쪽 페이지 위·윤동천 <정치가를 위한 도구들-파리제>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1  
아래·<윤동천>전 전경 2011





술 세계를 펼친다. 특히 언어는 그의 시각 작업을 온전히 채워 주는 재료로 시적 풍자를 완성시킨다. <거대한 침>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 언어란 공작의 원재료에 가깝다. 언어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브리콜라주는 '올화'와 '부아'에서 분노의 감정을 구체화하고 <정치가> 연작 중 깊은 회고 속은 검은 버전으로 풍자한 <정치가-속>은 위선으로 일관하는 세태를 짚어 낸다. 오브제 연작은 현실의 삶이 아닌 전시행정으로 도시와 일상을 소독하고 세척하는 위생화의 위험을 풍자한다. 진열대에 놓인 '살균 99.9%'라고 명시된 세제들과 벽면에 매달린 형형색색의 파리채는 다양성이 사라진 균질화 사회를 비유한다. 시인 김수영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진보적 예술은 불온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을 꿈꾸기에 예술은 기능 너머에 위치할 것이다. 그런데 꿈꾸기란 세상의 변화를 마주볼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 의미 있는 사물들, 시대를 담다

20세기는 상품의 시대로 시작되었다. 근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만국박람회는 상품이라는 물신주의를 통해 인류의 발전을 조망하려는 사건이었다. 사물을 소유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려 주는 신호였으며 부르주아지들의 취향을 대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올리비에 아시아스 감독의 <여름의 조각들>은 근대적 취향으로서의 수집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다룬 영화다. 어머니는 평생 수집한 아르테코풍의 세간들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귀찮아한다. 결국 이 세간은 유물로 인정받아 오르세미술관에 고스란히 전시된다.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전시된 유물로 바라보는 큰아들 부부의 당황스런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였다. 현대인에게 소비와 소유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1동아미술제 전시기획공모당선작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사물들이 주인공이다. 그것도 5살부터 80대까지 65명이 빌려 준 물건들로 구성된 전시다. 참여작가들은 이 물건들에 갖든 온갖 사연을 발췌해서 작업을 하거나 사물이나 여행과 관련된 자신의 작업을 물건들 사이에 끼어 놓았다. 이 전시는 사물을 통해 한국사회가 걸어 온 궤적을 짚어 보는 문화인류학적 태도로 이루어졌다. 기획 의도는 전시기획자의 한 친구의 가족사로부터 촉발되었다. 독일 파견 간호사로 떠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타향 살이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살다 귀국하면서 쌓인 물건들에 얽힌 이야기가 이 전시로 몸을 부풀렸다. 1989년 이전에 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주로 건설근로자 광부 간호사 파월장병과 같이 경제 개발이나 전쟁 같은 대의명분에 자신을 희생했던 인물들이다. 반면 1989년 이후는 출장 여행 유학과 같이 개인의 발전 여가 기업을 위한 경우가 잦다. 해외여행 자유화를 기



점으로 전시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먼저 1층은 이후의 물건들로 채워졌다. 애플컴퓨터의 초기 모델, 램 쿨하스를 유명하게 해준 단행본 <S,M,L,XL>, 박사학위 액자, 가짜와 진품이 섞여 있는 온갖 명품기방들은 개인의 취향, 직업 등을 예측하게 한다. 이전의 물건들이 놓인 2층은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특히 새터민 K씨의 수첩은 그의 남한살이가 녹록치 않음을 고백하는 듯하다. 자신이 모르는 단어들, 특히 외래어들을 빼곡히 적어 둔 수첩은 언어 또한 시대의 산물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오래된 전기밥솥과 중동의 카페트, 국수기계, 인형 등 생활과 직관되는 물건들도 많이 포착된다.

과학사회학자 셰리 터클은 사람과 사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대상’이라 칭하고, 우리가 이 둘의 상실을 비슷하게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는 점을 주목한다. 참여작가 김상균은 대여자들에게 그들이 빌려 준 물건으로 본을 떠서 만든 작품을 기증하는 대신 본래 물건과 교환하자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오직 한 명만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사물의 금전적 가치보다 감정적 동일시가 더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전시의 원래 기획 의도는 사물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나 온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물건들을 관찰하는 즐거움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한다. 살기 위해 이처럼 많은 물건이 과연 필요할 지에 관한, 소유의 욕망이 던지는 당황스러움과 각각의 물건들이 담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은 사물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삶의 이중성과 그 한계를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오인환 <우정의 물건>  
사진과 설치 2000

왼쪽 페이지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전 전경 2011

정현 미술평론가, 파리1대학 예술학 박사, 성신여대 중앙대 흥익대 등 강사

# Review

## 여행지에서 가져온 것들, 조명탄에서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2011 동아미술제 전시기획공모 당선작 전시

여의도 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 2011.12.29~1.29 / 일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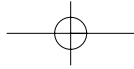
심리테스트의 단골 질문 중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이 있다. 이 테스트는 개인이 선택한 물건이 그 자신을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여의도 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전 또한 해외에서 모아온 물건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재해석한 전시이다. 진열된 물건들은 각자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인을 반영하는 매개물이며,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잔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전시물은 1989년의 해외여행 자유화를 기점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1989년 이후에 여행이나 유학 또는 출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1층에 진열되었고, 그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파견된 파월장병이나 중동 건설현장의 근로자 등이 가져온 것들은 2층에 전시되었다.

기획자 이해원과 고동연은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 95점을 65명의 개인으로부터 대여하였다. 그리고 오인환을 비롯한 22명의 참여 작가들은 그 물건들을 선별하여 예술작품으로 만들거나, 작품과 물건을 함께 병치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선택한 물건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시각적인 측면이 강조된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 셈이다.

일례로 박민숙의 경우 에르메스 스카프를 액자에 넣어 회화 작품처럼 벽에 걸었고, 그 주위에 대여자들이 해외에서 수집한 명품 핸드백들을 작품처럼 설치하였다. 아래편에는 작가가 제작한 데미안 허스트와 같은 해외유명작가의 이름이 인쇄된 고급스런 쇼핑백들을 진열함으로써, 작가의 이름이 마치 명품의 상표처럼





2



3

보이도록 만들었다. 상품과 예술의 경계를 묻는 이 작품은 2006년 뉴욕의 바니스 백화점에서 앤디 워홀을 상품화하여 그의 작품과 '해피 앤디 워홀'이란 문구로 소원도우를 가득 채웠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예술작품과 물건의 교환가치를 묻는 작업도 있다. 김상균은 물건들을 선택한 후 그것의 본을 떠내어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여자들에게 그들의 물건과 그것을 본 뜬 작품의 교환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각 개인들에게 그 물건들은 단순한 일상의 오브제가 아니라 예술작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인 전시물은 추억이 담긴 여행의 기념품을 넘어 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만나는 접변지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주로 광복 직후에 들어온 물건들은 공적인 경로의 해외여행에서 습득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의 조명탄이나 군인용 배낭처럼 공동체적인 역사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 후에 유입된 물건들 중 눈에 띄는 것들은 일본을 여행한 이들이 구매한 전기밥솥, 보온도시락, 워크맨 등의 가전제품이다. 근래에는 국내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제품들 대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상품이나 다문화 경향을 나타내는 물건들이 등장한다.

해외에서 반입된 것은 아니지만 타문화의 수용이라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작가가 가져온 물건이 전시되기도 한다. 중국 연변 출신의 신광이 습득한 탈북자의 '남한 말 얹기 수첩'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리더십, 인스턴트 섹스, 룸 등의 외래어를 국어로 풀이해 놓은 뽀뽀한 메모장에는 분단의 역사와 미국문화의 영향 그리고 일본식 성문화의 유입과 탈북자 문제까지 지난 역사의 흔적들이 녹아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011년 동아미술제 전시기획공모에서 수상한 이 전시는 자료나 물건을 전시하는 아카이브 유형에서 더 나아가 작가의 개입에 의한 작품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들 속에서 한국사와 개인사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의미를 읽어내게 하며, 타문화의 수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하게 하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한국인의 해외여행과 문화접변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의연 미술비평, 미술사



4

- 1 2층 전시전경
- 2 1층 전시전경
- 3 2층 파병-중동 섹션 전경
- 4 2층 전시전경. 작가들의 공구와 물건 이야기

